

Anthony J. Tomasino 박사, 십계명 세션 8: 계명 7 - 간음하지 말라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 강의입니다. 8번째 세션, 7계명 - 간음하지 말라.

자, 이제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간음 하지 말라. 얼마 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간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 몇 가지를 찾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간음에 대한 일화는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많은 작품이 같은 주제의 변형일 뿐이지만, 간통은 사회에서 대체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캔터베리 이야기 시대에도 간통은 그들의 희극의 주요 소재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유명 영화와 TV 프로그램 역시 웃음을 위해 간통을 소재로 삼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비극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는 바람피는 남편, 즉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아내는 그다지 웃음거리가 되지 않지만, 반면에 남편은 대개 농담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에 대해 훨씬 더 태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다양성이 삶의 묘미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적 도덕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모험, 더 쉽게 말해 훨씬 더 많은 불륜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간통 행위에 대해 어떤 종류의 공포를 느꼈을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한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는 과거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고대 사회 사람들과는 결혼 관계의 본질에 대해 매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연루된 두 사람 모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사회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대부분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 하고 정직하며 도덕적인 사람들로, 그들의 이웃들은 모두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고대 세계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를 맺을 때 아내로서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사랑이 무슨 상관이나고 묻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고대에는 로맨스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랑 시가 많았으니까요.

이집트에는 이런 것들의 유명한 컬렉션이 몇 개 있습니다. 다른 사회에도 연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성서에는 솔로몬의 아가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는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사랑, 배우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동반자 관계를 원하는 것 같은 개념이 존재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결혼 사례들은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바라는 모습, 즉 일종의 헌신, 상호 헌신과 동반자 관계 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대인 들은 결혼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맨스는 결혼의 주된 기반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결혼은 계약적 합의였으며,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정했습니다.

결혼의 주된 목적은 가족 재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자신과 비슷한 사회 계층과 수준에 있고, 가족의 재산 수준도 비슷한 여성과 결혼시키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정행위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은 정치적 동맹의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

물론, 그런 관행은 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이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낭만적인 사랑은 여기서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 관계의 주된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근대까지 이어 졌습니다 .

우리는 헨리 8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과 후계자를 얻고, 아들을 낳아줄 아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의

이야기 말입니다 . 헨리 8세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왕족의 혈통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는 고대 사회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 즉 땅, 물건, 집 등 자신이 축적해 온 모든 것을 다음 세대로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모든 질문이나 생각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불멸을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자 자녀를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불멸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간통은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법에서는 간통 문제와 그 관행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고대 근동 법전은 간통이라는 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중세 아시리아 법전은 최악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법전과 불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변형과 파급 효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놓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통이라고 하면 남자가 아내를 속이거나 여자가 남편을 속이는 것을 떠올립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간통에 대한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들은 결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 은 본질적으로 남자가 기혼 여성이나 약혼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성이 매춘부라면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매춘부를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어느 정도는 그럴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는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간통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음, 아마도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개입했다면 더욱 그렇겠죠. 만약 그녀가 미혼이고, 어떤 신분의 누군가의 처녀 딸이었다면, 이는 매우 나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부를 두거나 첩을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첩 관계는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2류 아내 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 아내의 모든 권리 등을 명시한 근사한 혼인 계약서를 가진 아내는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첩은 일반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첩은 대개

집과 지붕, 그리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자녀가 아무것도 상속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네, 때로는 첩이 집에 머물면서 아내처럼 대우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종류의 보호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일과 그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첩이 주로, 다시 말하지만, 사람마다, 관계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첩은 그저 성적인 파트너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첩은 사실상 계약 없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상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기혼 남성에게 첩이 있어도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창녀를 만나도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여자와 어울려도 간통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의 간통죄 처벌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 조항에서 발견되는 것은 " 남녀를 모두 죽인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단서 조항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

하지만 남자가 아내를 죽이고 싶지 않다면, 굳이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아내와 간통한 남자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만약 남자가 아내의 코를 자르기로 한다면, 이는 아시리아식 처사였습니다. 간통한 남자도 코를 잘렸습니다.

귀를 잘라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는 그녀의 귀를 잘라낼 수도 있었습니다 .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귀가 없습니다. 그녀를 보는 사람마다 그녀가 간통녀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간통을 저지른 남자의 귀도 잘렸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아내를 노예로 팔기로 했다면 (꽤 자주 일어났던 일인 듯합니다), 그녀와 간통을 저지른 사람 역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고, 좀 더 공평하게 처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위에게 좋은 건 수컷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품겠지만, 그 희망은 아마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관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가나안,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의 결혼관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결혼은 근본적으로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예외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그런 아름다운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짧고 뜬금없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녀의 남편은 두 아내를 두고 있고, 한 아내는 자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한 아내는 자식이 있고 다른 아내는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한나는 울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 일로 너무 화내지 마. 내가 아들 백 명보다 너한테 더 소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아내가 여러 명일 때, 어머니가 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니까요.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누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경쟁했던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는 것은 아내로서 삶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와, 요즘 우리한테는 이게 성차별적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그 시절엔 그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결혼은 주변 지역 사회처럼 재산 상속을 위해 가족들이 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다른 사회에서처럼, 상류층 여성은 신부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권리를 얻으려면 신부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류층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대부분,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을 얻고 싶어 했던 다윗 왕에 대한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왕이 아니었지만, 사울 왕의 딸을 신부로 얻고 싶어 했던 다윗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은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 백 명의 포피를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은 어떤 식으로든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당시 다윗은 특별히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을 가져왔습니다. 지참금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혼전 계약은 매우 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이고 계몽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옛날에는 여성들이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 스스로 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결혼 제도는 사업적인 계약이었고, 매우, 매우 잘 짜여 있었으며, 많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약혼한 여성들은 미래의 남편에게 묶여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약혼 파기는 간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 임신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간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약 율법에 따라 그녀를 돌로 쳐 죽일 권리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차라리 그녀를 조용히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녀를 파혼시키고, 이혼시키고, 약혼을 파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와 이혼하고,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남자, 정말 대단한 남자. 하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했던 것 같아. 구약 시대에 남자들은 다양한 파트너를 가졌을지도 몰라.

허튼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 속 다른 인물들 중 일부는... 자, 이게 장려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했고, 마치 '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남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반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여자는 간통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다처제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춘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지만, 이상적인 결혼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결혼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일부다처제는 돈이 많이 드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아마도 전형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아내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부다처제를 억압적인 제도, 가난한 여성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억 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는 전쟁과 소규모 접전이 잦았고, 남자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종종 젊은 나이에 죽곤 했기 때문에, 남편을 구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무엇이 더 나왔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아주 부유한 사람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매춘하는 독신 여성이 되는 것이 나왔을까요? 어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여성이 되거나, 그런 종류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취업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부다처제가 남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얼마나 부유한지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성들이 성욕에 찌든 종마들이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단순히 부유함을 과시하고 많은 여성을 거느려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결혼은 다시 한번, 매우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언젠가 부자 재산의 일부라도 물려받을 아이를 가질 기회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남자들은 아내와 이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구약성서에 따르면, 외설적인 행위로 인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외설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힐렐과 샬마이라는 두 주요 랍비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랍비는 음란함은 간음을 의미하며, 율법에 따라 이혼의 유일한 근거는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랍비는 "아니요, 음란함은 여자가 남자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예는 그녀가 그의 저녁 식사를 태우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입장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문헌 발견은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이 거의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부터도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대에도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조차도 여성이 남편과 이혼해야 할 경우에 대해 양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시대의 법률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를 보면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합의가 있었고, 혼전 계약서와 정책들이 여성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한 간략한 개요였습니다. 구약성경의 간음은 어땠을까요? 음,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계명은 성경에 몇 마디로 간결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디뭇, 간음하지 말라." 간단하고 명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웃들처럼 간통은 기혼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서 그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남성이 기혼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간통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만 간통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가 기혼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도 간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양방향으로 작용하죠. 남성은 매춘부와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죠.

아니면 어떤 종류의 미혼 정부와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매춘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딸들이 매춘부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 땅이 부도덕과 음란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에서 윤리적 공평성에 대한 가장 놀라운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희 아내들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내가 심판할 거라고 기대 하지 마라. 너희도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여기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이중 잣대를 허용했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구약성경에서 간음하는 자에게 규정된 형벌은 사형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간음하는 자는 간음한 사람이든 간음한 사람이든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아시리아 법전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 등등, 등등, 토라, 즉 구약의 법전은 그런 용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이 여러 남자와 간통을 저지른 놀라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노예로 팔 계획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돌로 쳐 죽이는 대신 자비를 베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간통법은 가족 관계가 아닌 가족의 유산을 보호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생아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뼈꾸기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네요. 뼈꾸기는 알이 여러 개 있는 좋은 동지를 찾아 먼저 부화하잖아요.

그리고 그 뼈꾸기는 다른 알들을 동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 그리고 어미 새가 돌아와서 이 뼈꾸기를 보면, 자기 새끼들과 뼈꾸기 새끼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 그래서 어미 새는 뼈꾸기에게 먹이를 주고 돌봅니다.

뼈꾸기는 크고 살찐 새가 되어 날아가서 뼈꾸기 같은 짓을 합니다. 남자들이 간통죄를 통해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동지에 뼈꾸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성경의 간음 법은 가혹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간음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간통죄로 몇 명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글썄요,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한 명도 생각나지 않네요. 이혼이나 노예 제도가 전형적인 처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혼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지참금 같은 것 없이 아내를 내쫓는 것을 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걸 포기했을 겁니다. 아마 혼인 계약서에 바로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 있고, 간통을 저지른 다윗 왕이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은 간통죄에 살인까지 더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간통한 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에도 있고 , 법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전은 확고한 기준이라기보다는 판사들을 위한 일종의 이상 과 지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는 식 의 말입니다. 그 율법에는 후대 바리새인들이 허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억울한 배우자로 묘사됩니다.

호세아서의 처음 두 장, 예레미야 2장과 3장, 에스겔 16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배우자인 주요 은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호세아서에서 이는 매우 흥미로운 차용입니다.

호세아는 바알 종교에서 바알 숭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알은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알은 어떤 의미에서 땅의 남편이자 바알 숭배자들의 남편으로 여겨졌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그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네 남편이며, 네가 가진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게 공급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속임으로써 하나님께 불충실했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애절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곧 그의 백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좋아, 너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가 말하길, 난 계속 널 데려갈 거야. 그리고 맹세하잖아, 알겠지, 널 잠시 가둬야겠어. 아마 추방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는 말하길, 하지만 널 다시 내게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때로는 이런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환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간음에 대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래, 너는 간음한 여자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네가 집으로 돌아오면 환영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간통죄가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간통죄는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네가 간통죄로 의심받았을 때, 그녀가 실제로 간통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들이 사용하던 방법 중 하나로 그녀를 목 졸라 죽였는데, 이는 정실 부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했듯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는 대신, 대개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저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헤롯은 그런 종류의 일은 절대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밀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과 그 안에 있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독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게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곤경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간음죄로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류의 사법적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어기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려는 것은, 네, 예수님께서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아, 모세가 거짓말쟁이었다고 말하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모세의 율법을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그들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네,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이 모든 질문을 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결혼의 진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결혼의 근거는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당시 유대교에서 벌어지고 있던 논쟁이었습니다.

힐렐 랍비와 샬마이 랍비가 있습니다. 한 분은 간통을 저지르면 된다고 하시고, 다른 분은 저녁 식사를 태워버리면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 둘, 주의하세요,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결혼을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관행이나 랍비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창조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 무엇을 의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시는 걸까요? 이상적인 결혼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모든 사람의 머리를 터뜨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으라고 명령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왜 모세는 그들이 헤어질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음행을 제외하고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모든 사본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독창적 인지 아닌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간음죄를 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따라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음은 결혼 관계의 파탄에 관한 것이지, 누가 누구를 속이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훼손되고, 어떻게 깨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결혼은 당신의 소유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물질적 재화나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관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혼과 간음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핵심을 짚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율법의 원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음, 네. 그래서 더 이상 서로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이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깐,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물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이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선의 선택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것은 결혼 제도와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한 사람들, 심지어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에게까지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생에서 그런 지위를 실제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계명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 거니와 "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여자를 음욕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와,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정말 가혹하게 들리네요. 정말 조용하게 들리네요. 인류의 절반을 정죄하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몸에서 마음으로 옮기셨습니다.

랍비들은 무엇이 간통죄로 간주되는지 정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랍비들처럼 그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변증법적 과정 같았습니다. 때로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간통으로 간주될까요? 어떤 랍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음,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랍비들은, 그들이 제기하는 사례들 중 상당수가 완전히 가정적이고 아마도 완전히 믿기 어려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사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제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수업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다가 일부 학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행정 휴가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저를 여기서 행정 휴가를 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부유한 집주인의 지붕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지붕 위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가 덥고 땀을 뻘뻘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거벗은 채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작업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집주인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던 자기 집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온몸에 멧진 태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남자가 갑자기 강풍에 휩쓸리더니, 바람에 집 밖으로 날아가 여자 바로 위에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랍비들이 질문을 던진 방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알겠죠?"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고, 질문은 "그들이 간통을 저질렀는가?"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다. 결국 결론은,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녀도 그럴 생각이 없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통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걸 간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정의하는 게 아주 중요했거든요. 아주 오래전, 제가 싱글이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제 대학 시절 기독교인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얼마나 더 가까워지면 혼전 성관계 같은 게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뭘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가?" 예수님은 우리 몸으로 뭘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유혹을 받고 있느냐? 유혹에 넘어가고 있느냐?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반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게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욕과 간음이지요.

이 점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남자가 여자를 보고 욕망을 느낀다면,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이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상담했던 한 젊은이에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예쁜 여자들을 보면 너무 끌려요."라고 말하며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마음속으로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음,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 합니다.

여기서 '욕망'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피투메오'입니다. 에피투메오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을 뜻합니다. 일시적인 변덕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랍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작은 일화도 있습니다. 랍비 한 분이 아름다운 이방 여인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은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 모두 그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표하는 것을 보고 다소 분개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네, 제 말은, 그게 간음인가요? 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인 것 같아요. 어찌면 반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해치고 있는 겁니다. 정욕은 결혼 관계의 진실성을 훼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반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의 진실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간음 행위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간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가 몇 년 전 플레이보이 잡지와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 그때 지미 카터는... 나이 들어 보이는군. 당시 그는 지미 카터 후보였어. 지미 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신념을 걸기로 드러낸 최초의 대선 후보였다는 거야.

저는 그가 매우 독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지미 카터를 언급한 이유는 이 플레이보이 인터뷰 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성행위를 할 것인지 그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지미 카터는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할 법한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맹목적으로 나열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 어떤 신체적 행위가 간통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녀와 손을 잡으면 간통죄를 짓는 건가요? 팔로 감싸 안으면 옆으로 꺾어안는 건가요? 좋아요. 정면으로?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촉발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어떤 사악한 마술사가 당신을 최면에 걸려 그의 아름다운 조수가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무대 위에서 그의 아름다운 조수와 키스를 나누며 모두가 당신을 비웃는다고 해도, 당신은 간통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마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의지의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현대적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감정의 씨앗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감정은 신체의 여러 곳에 위치했습니다 .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같은 다른 종류의 감정을 신장에서 느낄 수도 있고, 뇌가 아니라 장이나 위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뇌가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뇌가 뭘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대개 감정의 씨앗이 아니라, 종종 의지의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마음속의 정욕과 간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는 관계를 해치는 행위에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도 부정 행위라는 개념에 폭 빠져 집착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상을 품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환상에 빠져들고 그 환상을 즐기는 것,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네가 이런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네 눈이 계속 저 여자를 쳐다보고 싶어 한다. 만약 네 눈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아이를 바로 꺼내 던져버려라."

손이 닿으면 안 될 것을 만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손을 잘라 버리세요. 손이나 눈이 잘린 채로 천국에 가는 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5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과장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눈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요점은 우리가 우리의 순수함, 우리 관계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그 예쁜 스타나 예쁜 신인 여배우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 없이 TV를 볼 수 없다면, 어찌면 TV를 포기하는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TV를 볼 수 없다면, 아니,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유혹을 느낀다면, 그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하지 않는 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가끔씩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아이오와주의 한 치과 의사가 자신의 조수 중 한 명을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해고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추파를 던지는 듯한 행동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넉넉하고 후한 퇴직금을 주겠지만,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당신이 곁에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그녀가 소송을 걸었고, 그 사건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그리고 그 치과 의사가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는 악랄한 소문이 온통 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결국, 사실, 그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가 그녀를 거리로 내쫓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치과 보조원이었습니다. 치과 보조원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뉴저지 대형 교회의 한 담임 목사가 모든 직원에게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옛 연인과 관계를 맺었고, 담임 목사는 이것이 너무 큰 위험이라고 판단하여 "내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간음이 언급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되는 곳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야고보는 좀 더 넓은 의미, 일종의 영적인 간음 같은 것을 다룹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음한 배우자와 같다고 자주 선포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야고보는 신약에서 그러한 이미지를 부활시킵니다.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따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간음의 문제를 행동이 아니라 마음, 즉 태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랍비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랍비들은 간통 행위를 정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간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집착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행위보다는 간통한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순결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마음의 정결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갖고 다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결혼 관계에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결함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마틴 루터에게 인용된 멋진 명언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마틴 루터의 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항상 이 명언을 좋아했습니다. 마틴 루터에 따르면,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들이 머리카락에 동지를 틀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루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뇌절제술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끌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덧없는 환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루터는 말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환상을 강박관념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숲속을 산책하거나, 교회에 가거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려 한다면, 그리고 저도 이것이 때때로,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느낀다는 사실, 그리고 때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감정에 시달린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듣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항상 능숙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유혹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교회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취약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각에서 시작되고 뿌리를 내리는 곳이 바로 생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에 동지를 틀기 전에 그 싹을 잘라낼 수 있다면 나중에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와 그리고 이성과 순수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리고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는, 많은 경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반자들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부터 순수해지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외면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 강의입니다. 8차시, 7계명 -
간음하지 말라.